

## 신장 이식환자에서의 암종 발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강경원\*, 권오정\*\*, 김상목, 박찬현, 강종명, 박진영\*\*, 박한철

신장이식 환자에서 장기적인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라 암종의 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높아진다. 서구의 이식환자에서 6% - 8.3% 정도의 빈도로 암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양인에서의 암종 발생빈도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한국인에서의 발생 빈도에 대한 보고는 없다. 이에 연구자들은 한양대학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최소한 6 개월 이상 추적 관찰된 환자를 대상으로 신이식 후 발생하는 암종의 빈도와 종류 및 발생에 연관이 있는 인자들을 조사하였다.

대상환자는 전체 392례, 386명(남자 272명, 여자 114명)이었고, 이식 당시의 평균 연령은 36.6세(SD 10.6)이었으며, 공여자와의 관계는 혈연간 191례, 비혈연간 187례, 사체신 14례가 있었고, 재이식이 13례 있었다. 면역억제제로 cyclosporine(CsA)을 사용한 면역억제법이 352례, 사용 안한 면역억제법이 40례 있었다. 이들은 이식 후 평균 4.59년(S.D. 3.4)동안 추적 관찰되었다.

암종의 발생은 대상 환자 중에서 12명(3.1%)에서 발생하였으며, 남자 8명, 여자 4명에서 발생하였다. 암종의 증상이 처음 나타나거나, 우연히 발견된 시기는 이식 후 median 21개월(2 - 182)이었고, CsA 사용군중 11명, 비사용군중 1명에서 암종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암종의 종류는 카포시 육종 3례, 자궁 경부암 2례, 폐암 2례(선암 1례, 세기관지-폐포성 암종 1례), 신세포암 2례, 림프종 1례, 악성 신경초종 1례, 위 선암 1례, 파더 팽대부 선암 1례, 대장암 1례 이었고, 12명중 2명의 환자에서는 1명은 신 세포암과 폐 세기관지-폐포성 암종이 같이 발생하였고, 다른 1명은 대장암과 위암이 발생하였다.

## 신 이식후 발생한 악성 종양에 관한 임상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북현정\*, 김병수, 박주현, 양철우, 김용수, 김석영, 장윤식, 방병기

목적 및 방법 : 신장 이식후에는 장기적인 면역억제제로 인해 악성종양의 발생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종양의 종류, 치료방법, 생존율등에서 일반인과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가톨릭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1997년까지 신장이식을 시행하였던 총 1130예에서 평균 61.6±46.8개월간 추적관찰을 하여 발생한 악성종양 37예에 대하여 임상고찰을 하였다.

성적 : 악성종양의 발생빈도는 약 3.3%, 남녀비는 23:14, 종양발생시 연령은 평균48세(28-69) 이었고 발생시기는 평균 이식 후 7.1±4.7년 이었다. 부위별 발생빈도는 자궁경부암 8명(21.6%), 위암 6명(16.2%), 악성임파종 5명 (13.5%), 간암 4명(10.8%), 방광암 3명 (8.1%), Kaposi 육종 2명 (5.4%), 폐암 2명 (5.4%), 기타 7명 (18.9%)의 순이었다. 기본 면역억제제가 Azathioprine일 경우 악성종양의 발생율은 6.8%로 Cyclosporine의 2.7%보다 많았고 (P<0.05), 발생시기는 각각 12.7±3.5년, 5.0±3.1년으로 Cyclosporine의 경우가 보다 조기에 발생하였다.(P<0.01). 악성종양이 발생했던 37예에서 11명(29.7%)이 종양으로 인해 사망했고, 6명(16.2%)이 종양 이외의 이유로 사망했으며, 20명(54.1%)이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는 20명중 4명이 거부반응으로 인한 이식신의 기능을 잃었고 16명은 이식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5명의 악성임파종의 경우 임파선에 발생한 경우가 2예, 소장예 발생한 경우가 2예 그리고 대뇌예 발생한 경우가 1예가 있었고 모두 항암치료를 시행하였고 이중 한명이 재발하여 Interferon, anti-viral agent, IV gammaglobulin으로 치료 하였다. Kaposi 육종의 경우 모두 피부및 폐를 침범하고 있었으며 1예는 면역억제제만을 끊고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다른 한 예는 위장, 방광등의 침범이 동반되어 항암요법으로 현재 치료중이다. 한편 피부암의 경우는 편평상피암 1예만이 관찰 되었다.

결론 : 신장이식후 악성종양의 발생빈도는 약 3.3%이었으며 최근 장기이식의 증가와 생존율의 상승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